

# ‘사공’ 없는 국제템플스테이션터

## 18일 상량식, 운영계획 없어... 부지 제공한 조계사 부채 상환도 과제

한국불교 세계화의 대서원 아래 착공해 3년여의 신고를 겪은 국제템플스테이션터. 2000년 불자들의 열원인 국제템플스테이션터 완공이 3개월여 남은 가운데 운영주체 및 구체적 운영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계종은 2월 18일 서울 신정동 불사현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주요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템플스테이션터(이하 센터) 상량식을 봉행했다.

2008년 11월 첫 삽을 뜬 센터는 상량식에서 지상 7층·지하 3층, 동수 수용인원 800여명·상주인원 100여명 규모의 웅대한 자태를 드러냈다.

센터에는 국고지원금 190억 원을 포함해 400여억 원이 투입됐다.

한국형 플랫폼리지를 표방한 센터는 조계종 제33대 집행부의 수도권포교 활성화의 핵심시설로, 향후 건립될 각 지역명사센터 등과 유기적으로 운영된다.

웅대한 시설 운영 비전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현재까지 운영주체 확립 등 내부작업이 미진하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센터 운영팀 등을 구성하기 위해 2월 초 열린 총무원회의에서 총무부·재무부·기획실·불교문화사업단의 관련 4개부처로 구성된 TF팀(태양정·재무·기획·문화)을 발족했다.



서울 신정동 불사현장에서 봉행된 상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 집행부(왼쪽)와 조계사 신도 등 불사에 기여한 중도들이 참석했다.

이들 두고 교계에서는 “TF팀에서 운영계획 등 초안이 마련돼도 운영 책임자가 정해지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운영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이상 세부적인 운영계획 마련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TF팀 한 관계자는 “현재 운영계획은 없다. 세부적인 운영프로그램까지는 TF팀이 기획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센터 운영과정에 건립에 기여한 중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건립부지를 제공한 조계사와의 문제다.

국제템플스테이션터 부지는 조계사 소유로 2007년 11월 부지선정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조계사는 1992년부터 신도들이 땅을 팔아 모은 품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약 35억 원을 들여 현재 부지를 매입했다. 조계사 내부에서 부설 포교당을 활용할 부채 상환과 매각을 통한 조계사 성격화 자금마련 등의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2007년 당시 시가 160억 원의 부지를 담보로 총무원과 불교문화사업단이 국고지원금을 지원받기로 결정하면서, 이 땅은 특별한 공사의 없이 국제템플스테이션터라는 이름으로 지어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조계사 신도들의 반발이 일었고, 조계사 주지겸 당시 총무부장인 원학 스님은 “센터 완공 후 조계사 포교당으로 운영돼야 하는 만큼 총무원장 스님에게 이러한 뜻을 전했다. 신도회가 운영 일부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발을 무마시켰다.

현재 국제템플스테이션터 부지로 인해 조계사의 몫이 된 부채는 이자 포함 70여 억원에 달한다. 조계사 성격화 사업으로 2009년 9월 매입한 삼오모텔 관련 부채까지 고려한다면 조계사로서는 엄청난 부담이다.

조계사 신도회 관계자는 “종단과 조계사의 부채담감과 운영 논의는 없었다. 6월 중 30억을 추가로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신도들에게 영구 위폐, 불사를 위한 권선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글=노덕현·이상연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Shop** **사은품 증정** 회원가 145,000 **☎ 02)2004-8216**

# 봉원사·선암사 맞바꾸기?

## 조·태 소유권 분쟁 사찰 선암사 등 4곳... 해법에 관심

최근 조계종-태고종간 신촌 봉원사 소유권 분쟁이 50여 년 만에 해결됐다.(본지 제771호 보도) 봉원사건은 두 종단간 자율적 해결이 아니라 법원의 조정안을 양 측이 수용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조계종-태고종이 각각 내부 잡음을 해소하고 ‘조정안 수용’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에는 교계의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가운데 신촌 봉원사건 같은 해소가 조계종-태고종간 다른 분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조·태 분쟁 중이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사찰은 순천 선암사를 비롯해 서울 백련사, 관악산 성주암, 영종도 용궁사 등 4곳 정도이다. 한 때 분규사찰은 10여 곳이 넘기도 했으나 수십년간 분규를 거듭한 끝에 법원 판결을 통해 해소 중이다.

조계종-태고종의 분쟁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로 촉발된 비구-대처승간 대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갈등을 조계종은 ‘정화운동’ ‘정화불사’라 부르고, 태고종은 ‘법란’ ‘분규’ ‘정화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담화로 해방 직후 전체 승려 중 90% 이상이 대처승이었던 것에 비해 200-600여 명이 지나지 않았던 비구승들은 정부의 엄호 아래 다수의 전통사찰을 접수했다.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비구 종단인 조계종은 우선적으로 주요사찰을 조계종 소유로 등록했다. 분규사찰은 대개 이때 무렵 된 사찰이었다.

이들 사찰을 조계종은 ‘미입주 사찰’이라 부르며, 삼보장재를 지키고 되찾겠다는 명분으로 조계종 소유로 삼고자 했다. 2004년 원주 봉서사 사태가 보여주듯 “되찾겠다”는 조계종과 “지킨다”는 태고종, 양 측 모두 물리적 충돌도 서슴치 않았다.

조계종이 강화 보문사 말사였다 고 주장하는 영종도 용궁사와 서울 일원동 불국사, 관악산 성주암 모두 비슷한 경우다.

순천 선암사는 법적으로는 조계종 소유지만 태고종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정화불사’를 거치면서 조계종 소유로 등록했지만 태고종은 계속해서 점유했고, 이 과정에서 수차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법정 공방 끝에 선암사는 조계종 소유로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태고종의 계속된 점유 속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순천시장이 선암사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

선후관계를 떠나 조계종이 일부 사찰을 재산 등록에서 누락시키거나, 법정 논란 속에도 태고종이 점유를 그치지 않은 사찰은 분규사찰이라는 말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조계종 총무원장은 현재 미입주 사찰 현황 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중법 등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태고종은 분규사찰에 대한 정리작업 조차 전무하다.

태고종 총무조정실장 도각 스님은 “태고종은 ‘분규사찰’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각 스님은 “봉원사건 해결을 위해 태고종이 대승적 결단을 한 만큼 태고종단 분산인 순천 선암사건에서는 조계종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릴 차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조계종도 선암사건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태고종이 총본산이라 주장하는 것처럼 조계종도 선암사가 근현대에 교구본사였던 사격(寺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식 부천대 교수는 “1994년 개회 당시 조계종이 내부문제로 신경을 쓰지 못하자 태고종은 1998년 선암사가 총본산임을 표방하며 승가대학을 설치하고 종단 행사를 매년 개최하는 등 실제 점유율을 높여 왔다”며 “분규사찰의 최근 판결은 점유권을 인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교계 일각에서 “조계종-태고종이 신촌 봉원사와 순천 선암사건을 서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이때문이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 축비와 목탁

### 천년 내다보는 계획 세워야

종로는 가장 서울다운 곳이지만 서울과 가장 다른 곳이기도 하다. 아찔하거나 종로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서울의 변화가 비껴간 옛 풍이 살아있다.

종로에서도 인사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평일에도 인사동 길에는 떡과 다과를 비롯한 한 국음식을 맛보고, 옛 물건을 보며 추억을 쌓으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사람들은 전통과 과거가 살아있기에 인사동을 찾는 것이다. 인사동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

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곳 중 한국이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다.

하지만 조계사를 찾는 사람 대부분이 놀라는 점이 하나 있다. 불교전통과 연관시키기 힘든 주변 건물들 때문이다.

조계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면서도 그 위상에 비해 사격이 왜소하다. 조계사가 최근 들어 전통가람(伽藍)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지만 새로이 건축되는 건물들은 기존 조계사의 풍취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로 지어진 한국불교역사문화 기념관, 당초 취지였던 목탁 행사과는 거리가 먼 전법회관, 직선위주의 기하학적 구조의 템플스테이 정보센터는 옛 풍을 간직한 대중전을 어렵게 만든다.

조계종은 오래 전부터 조계사 성격화 사업을 표방하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왜 이러한 부조화가 나타날까. 조계사 성격화 사업은 집행부 교체 및 주지 인사에 따라 밀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2월 초 원담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지금까지와 달리 보다 큰 그림에서 성격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 등과 협의해 인사동 등과 연계된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자들만의 성역을 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조계사를 위해서는 ‘내 입기에 이뤄야 한다’는 마음의 성역을 먼저 허물어야 한다. 100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을 마련해 하나씩 실천할 때다.

노덕현 기자 dhavalai@buddhapia.com

### 현대화된 영산재 3월 11일 시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가 현대화·대중화돼 역대 최대 규모로 봉행된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2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11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 성공개회 기원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 ‘2010영산재’에서 현대화·대중화된 영산재가 시연된다”고 밝혔다.

‘2010영산재’는 전통 영산재에 내재된 종교성 등 기본 틀은 유지한 채 예술성 등을 극대화해 각색됐다. 시연 시간도 전통 영산재의 절반인 1시간 여로 단축시켜 공연의 짜임새를 더하고, 대중의 지루함을 덜도

### 김성광 목사 막말

종평위 유감표명

태고종 총무조정실장 도각 스님은 “종교의식인 영산재의 문화적 예술성 부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행사에는 식전 행사로 오후 1시 30분부터 영산재 관련 영상물이 방영된다. 2-3시 새로 각색된 영산재가 시연되고, 3시부터는 G-20 정상회의 성공개회 기원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 종평위 유감표명

목사가 설교시간에 불교에 대한 근거 없는 막말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강남 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는 2월 12일 설교에서 “스님에게 목탁을 왜 두들기냐고 물었더니 잘 들까봐 두드린다더라. 불교결전은 성령의 감동이 없고 귀신들만 나온다” 등의 불교 폄하 발언을 했다.

이에 관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혜경·손안식)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유감표명의 견서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모델: 前 세계 “미세스진”. (촬영: 방필석 법사)

## ★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니 ★

신생아 **작명**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작식이 효도하면 아버지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썩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739-8259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역)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법사**

**주역 개인지도**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방필석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श्री랑가 대통령 초청 방문 3회 前 श्री랑가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श्री랑가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श्री랑가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श्री랑가 문화교류협회 • 제 14차 세계불교대회의 한국대표 श्री랑가 콜롬보대회 참석 • 제 20차 세계불교대회의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9회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승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耕當問奴(경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 일이 잘 안풀릴때 개명 하십시오. 그래서 옛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은 必無濟人之이요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